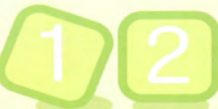




정기간행물 등록 13호 Vol.35

등록번호: 경기D00070 등록일: 2006년 8월 7일
발행일: 2009. 2. 1 간행: 리앤리 발행인: 박광진
편집인: 박광진 발행처: 우리꽃
발행소: 경기도 파주시 도곡면 송곡리 696
주소: 서울 송마구 가락동 99-3 제2업자(주) 6770
TEL. 023402-1680-8 FAX. 023402-1685



격월간

CONTENTS

특집 1 한국의 화훼산업에 대하여	1p
현장 가이드	2,3p
품종 갤러리	4,5p
리더스 초이스	6p
모토 스토리	7p
품종 포커스	8,9p



가든 미스트 | 자재소개



신소재 관목소개



월드 리포트



우리꽃과 사람들

우리꽃 따라잡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주)하쿠산은 일본에서 분화식물과 화단 묘종 생산자를 위주로 해서 식물의 종자와 묘종을 수출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업무로 가게 된 것은, 정확히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던 2002 년입니다. 가까운 나라였지만 그때까지는 비즈니스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정원(가든) 붐이 정점(피크)을 지나서 생산물이 포화상태가 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가 된 일본 원예업자와 비교해서 성장 가능성과 발전성이 있는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분화식물 상품을 주로 유통되고 있고, 특히 직경이 10cm인 화분의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규격으로 보이고 제한된 온실 면적 안에서 효율성을 높여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되어 온 것이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까지의 시장에서는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산 만 하면 판매가 되는 시대로부터, 품질과 품종이 중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시장에서 중요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품종등록제도도 확립되어지고 모든 품종이 등록자들이 되면, 세계 각국의 육종가들도 한국 시장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장마,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선발된 품종은 세계에 내놓아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생식물을 육성하여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도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개인 소비자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고 정원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즐길 수 있는 컨테이너가든(식물을 플랜터나 벽걸이 용 화분 등 이동시킬 수 있는 용기에 심어 즐기는 방법)과 같이 다양한 식물 소재의 발굴 등 다양한 식물을 소개하여 원예식물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韓国の花卉産業について

私の所属している兩ハクサンは、日本で鉢物や花壇苗生産者を主として、植物の種子や苗木を輸出している会社であります。私が韓国へ仕事に行くようになったのは、ちょうど韓日でワールドカップが開かれた 2002 年からです。それまでは身近な国であったのですが、ビジネスとしてなかなか行く機会がありませんでした。

その頃は日本でのガーデニングブームもピークを過ぎて生産物が飽和状態になってきたところでした。そんな中で韓国マーケットについては、日本ではある程度認知されている商業資本と比べて、まだまだ伸びつつある発展性のあるマーケットと見受けられました。

韓国では、鉢物としての製品が主に流通しており、特に直径が 10cm 程度の製品が多く生産されております。これは生産者のほうからの規格らしく、採られた低産面積の中でのいくらかの効率よく生産するかと云う考えの下で広がってき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

そんな中、これからのマーケットとしては、日本がそうだったように、作ばし販売の時代から、品質や品種が重視され、付加価値が着いたものがマーケットで重要度を占めていくと考えられます。

韓国国内では、種苗登録制度が確立されつつあり、すべての品種が登録対象となれば、世界各國の育種家が韓国のマーケットに期待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また、韓国と日本のような梅雨、暑い夏、寒い冬という苛酷な環境の中で選抜された品種は、世界においても十分に通用する品種があります。韓国において自生植物の育種を促してもらい世界に紹介してもらえれば品種の流通も期待しております。

韓国の個人消費者は、アパートに住んでいる人が多いので、庭をもてない家庭が多いと聞きます。個人が楽しめるコンテナ・ガーデン的な寄せ植えの素材としての需要を掘り起こすべく、いろいろな植物を紹介して園芸植物が幅広く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兩ハクサン, J&H Japan 代表 森野 勝義
Hakusan Co., Ltd.
J&H Japan General Manager Katsuyoshi Mizuno





중부 컨트리 클럽

중부 컨트리 클럽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개장한 이래 '우리꽃'과 처음 인연이 된 것은 2004년 처음으로 혼합식재를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 오고 있다.

2004년, 혼합식재의 서막

'우리꽃'은 경관적, 기능적으로 뛰어난 많은 품종을 확보해오면서 그 품종들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맞게 선정하고 배치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혼합식재란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전 포천의 바보꽃밭이나 삼척의 파인밸리 골프장 등 자문을 하거나 일부 직접 식재 공사를 한곳이 있지만 본격적인 혼합식재를 시작한 것은 2004년 중부 컨트리 클럽에서 부터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전 18홀을 상대로 60여 군데의 자리에 식재를 하였다. 주로 티 주변이나 그린 주위 등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다. 면적은 10~30㎡ 정도의 공간에 요소요소 숙근초를 심어 어느 홀을 가더라도 봄, 여름, 가을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가장 신경이 쓰인 곳은 9홀과 18홀, 16홀이었다. 9홀과 18홀은 게임이 끝나고 빠져 나가는 곳이라서 동선이 길고 중요한 자리였다. 16홀은 처음으로 ARI가든 형태를 만든 곳으로 16번 그린에서 17번 티로 넘어 가는 곳에 쉼터가 있고 그 옆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기존에 소나무와 벌개미취 등 일반 야생화들이 심겨져 있었던 자리를 소나무를 제외한 식물들을 걸어내고 면 정리 후 식물을 식재했다. 식재 후 흰색의 화산석(지금의 그린키퍼)를 깔아 마무리 했던 것이 우리꽃의 ARI가든의 시작이라 볼 수 있었다.

처음 공사를 했을 때는 땅이 너무 많이 보여 녹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3달이 지나고는 그런 걱정들이 없어졌다. 물론 효과도 좋았다. 한두 품종씩 심어 1~2달 만 보던 꽃을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2005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한국형 암석가든(ARI가든)



2005년도에는 ARI가든 공사와 일부구간 혼합식재를 시행 했었다.

ARI가든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가 고객 이 입출입하는 곳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 이었다. 면적은 60㎡정도 이고 소나무 아래이다. 중부 C.C.는 겨울에도 개장을 하

므로 먼저 고려된 것이 상록성인 식물과 소나무 아래에서도 잘 자라는 것이어야 했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품종은 유카와 맥문동 이였고 호스타 계통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 추식구근을 많이 심어주어 봄철 화려함을 더해 주었다.

혼합식재는 14분 티홀 좌측으로 티에서는 길하나 건너 바로 있는 자리이다. 경사가 급한 면은 꽃잔디 4개종을 혼성식재 하고 경사가 약한 면은 혼합식재로 하였다. 첫째 식재 후 뒷부분과 앞쪽에서 고사하는 것들이 생겨났다. 우선 뒤쪽에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보여 Iris계통으로 품종들을 바꿨고 앞쪽 편에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흰줄무늬대사초와 스탈라원주리, 웨싱아스타 등으로 교체 하였다.



2006년, 계류가 돋보이는 대면적의 ARI가든



2006년도에는 16번홀 그린과 17번홀 티 주변의 언덕에 ARI가든을 조성 했다. 면적은 1400㎡이고 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나뉘져 있다. 16번 그린에서 티로 넘어가는 길로 포인트는 계류의 설치이다. 우선 경사가 있고, 면적이 넓은 곳 이라는 것이 계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 경사가 약한 곳도 계류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처럼 경사가 심한 곳은 폭포를 만들 기에도 좋은 조건이라 하겠다. 사진에서 보듯이 길 바로 옆으로 폭포를 만들어 눈으로 또는 귀로도 즐길 수 있게 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쾌함을 줄 수 있다. 또 넓은 면적을 돌과 식물로만 꾸밈을 때보다 물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추가함으로 해서 한층 더 자연친화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배어 나오게 하였다.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좌측은 고산의 느낌을 우측은 화려한 정원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식물 배치를 다르게 하였다. 좌측은 그라스류를 많이 사용하였고 우측은 장기 개화하는 가우라, 후룩스를 중심으로 품종을 다양하게 하고 화려한 꽃 위주의 식재를 하였다.



2008년, 폰드 주변을 혼성혼합식재로



2008년은 4~5번 홀의 폰드를 리모델링 하며 주위에 식재를 하였다. '우리꽃'이 신식재 이론으로 혼성혼합 식재를 여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중부 C.C.도 이 이론에 맞춰 설계를 하고 실행

했다. 폰드와 폰드 사이에 계류를 연결하는 리모델링이었고 그 계류 뒤편으로 혼성혼합 식재를 하였다. 주 초종은 아스타(고성종, 10~11월 개화)와 개량 후룩스(6~10월 개화) 사스타데이지(5~6월 개화)로 선정 하였다. 혼성혼합 식재는 해당하는 시기에 1~2개의 품종이 집중적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 또 혼성하여 식재하기 때문에 먼저 시기에 피었던 꽃이 저도 바로 다음 시기의 식물이 자라 덮어 주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상태만 보여 줄 수 있다.

2007년, 클럽하우스 앞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2007년도의 식재는 클럽하우스 앞의 ARI가든의 시공이었다. 코스 내가 아닌 고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시공하는 만큼 신경이 더 쓰이는 장소이다.



우선 위치를 보면 클럽하우스 앞이고 클럽하우스에서 게임이 시작하는 1번과 10번 옆에 있어 오후 4시 전까지는 항상 대기 하는 고객들이 있는 장소이다. 또 크게 자란 느티나무와 중심부에는 소나무가 심겨져 있어 음지에서 반음지가 다른 현장보다 많았다.

품종으로는 90여종 이상이 들어갔으며 그중 음지나 반음지에서 자라는 품종을 많이 추가 하였다. 무늬옥잠류와 원주리 계통, 대사초 등을 다른 ARI가든에 비해 수량을 늘렸고 꼬리풀, 볼풀 등 양지에서 자라는 물관반음지에 서도 적응을 잘하는 품종들도 추가 하였다. 이곳 역시 계류와 폭포를 만들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라 연못도 추가로 만들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에 시공을 하여 비를 맞으면서도 강행 하여 끝내 쉽게 잊어지지 않는 현장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꽃'이 조경현장에 적용시킨 모든 식재 기법들이 중부 C.C.에 모두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꽃이 발행하는 우리넷과 여러 팸플릿 등에 시공 사례로 많이 올라 오는 장소 중의 한곳이 중부 C.C.이기도 하다. '우리꽃'에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새로운 식재 패턴을 빨리 적용했으며,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 코스관리부 관계자 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좋은 경관을 가능하게 했으리라 본다.

애기노랑금계국

Coreopsis 'Creme brulee'
국화과, 🌞
6~10월까지 장기간화. 화색은 노랑색이고 키는 30~40cm 정도 자란다. 꽃은 직경이 약 3cm 정도로 기존 금계국 보다 작으나 화수가 많은 다화성의 식물. 1차 꽃이 만개 후 지고나면 위로부터 3~4마디 아래를 커팅해 주어야 2차 개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다. 도로변, 골프장, 식원 등 대면적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이용하면 좋다. 번식은 봄, 가을로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삽목.



상록양지꽃

Waldsteinia lobata
장미과, 🌞 🌑 🍃
5~6월경 노랑색꽃이 피고 키는 약 10cm정도 자라는데 런너를 뻗으면서 포복성으로 자라며 지피력이 뛰어나다. 잎은 진녹색이고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어 질감이 좋다. 음지에 잘 적응하여 도심 속의 가로수 아래를 비롯하여 골프장, 식원, 정원 등의 나무아래를 비롯한 음지지역에 군식하거나 수초초, 대시조류, 호스타류 등의 음지식물과 혼식해도 좋다. 번식은 봄, 가을에 런너를 떼어내어 삽목하거나 포트에 직삽 해주면 된다.



상록잔디패랭이

Dianthus hybr. 'Evergreen Emerald'
석죽과, 🌞 🍃
'우리꽃'이 개발한 국내 품종출원등록 품목. 진분홍색의 꽃이 4~10월까지 연속 장기간화. 꽃은 화수가 많고 화분색을 띠는 잎의 질감이 좋으며 식물품 또한 흐트러지지 않고 마운트형태로 자란다. 대면적에 군식, 앞줄의 피복식물, 혼합식재시 앞쪽식물, 건조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번식은 봄, 가을에 삽목하면 된다. 단, 이 품종은 '우리꽃'에서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어 타인이 무단으로 재배하면 법에 저촉이 된다.

상록에버골드

Carex oshimensis 'Evergold'
사초과, 🌞 🌑 🍃
상록의 선이 아름답고 품이 좋은 무늬죽 그라스. 키는 20~40cm정도지만 긴 잎은 60~70cm에 달한다. 잎은 안쪽으로 노란줄무늬가 들어있고 광택이 좋은 왁스층이 발달해 두꺼우면서도 질감이 뛰어나다. 점식나열을 하거나 혼합식재의 앞쪽 포인트식물, 락가든의 돌틈식재나 겨울 상록성을 잘 표현하는 포인트 식물로 좋고 데크의 주변식물, 긴 화분에 심어 디스플레이용으로 활용가능하다. 번식은 봄, 가을로 포기를 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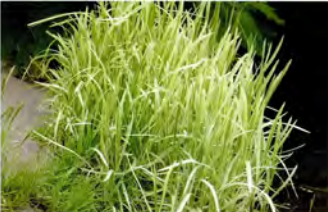
카펫주름임

Mazus reptans
현삼과, 🌞 🌑 🍃
키는 3~5cm로 포복성이며 지표면에 달은 가지의 마디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포기를 형성. 꽃은 5~8월 사이 피우는데 보라색꽃과 흰꽃이 피는 2품종이 있다. 잎의 크기는 매우 작고 마디도 매우 조밀하다. 카펫처럼 밀도가 높으며 답압에도 아주 좋아 일반지의 잔디대용 뿐만 아니라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하는 수변 혹은 습기가 많은 장소의 피복식물로 매우 좋은 소재.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 나무아래, 건물음지 등의 피복용으로 적용가능하다.



무늬글리세리아

Glyceria maxima 'Variegata'
화본과, 🌞 🌑 🍃
키는 60~90cm까지 자라고 잎이 혁질이고 노란무늬가 들어있다. 땅속 지하경으로 번식하고 맹아력이 뛰어나다. 주로 수변지역이나 물기가 많은 곳에 식재하면 좋고 감긴하고 무늬가 좋아 일반 공원의 화단에 적용해도 무난하다. 그리고 수심 20cm 까지 식재해도 생육이 가능하다.



억새 그린라이트

Miscanthus sinensis 'Green Light'
화본과, 🌞
잎이 아주 가늘고 조밀한 억새로 키는 약 170~200cm 자란다. 포기를 이루는 분얼이 매우 조밀하여 안정된 식물품을 유지한다. 군락으로 심어도 좋지만 정원의 포인트식물이나 작은 그라스화단을 만들거나 긴 보행로의 생울타리용으로 적용하면 좋다. 번식은 봄, 가을로 포기를 분주



억새 리틀제브라

Miscanthus sinensis 'Little Zebra'
화본과, 🌞
밀집한 대면적으로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앞쪽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물빠짐이 좋은 사질양토나 일반 습윤지를 좋아하고 물빠짐이 나쁜 마사지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다.



키가 작은 호피무늬억새로 120~150cm정도 자란다. 잎이 가늘고 가로형의 띠무늬를 가지고 있고 9월경에 이삭이 맺히기 시작한다. 그라스원을 만들 때 물리니아 등과 같이 중간크기의 위치에 배치할 때 유용하고 생울타리용으로 적용해도 좋다. 봄, 가을로 포기를 분주해서 증식해준다.

거북머리

Chelone obliqua
현삼과, 🌞 🍃
키는 60~80cm정도 자라고 꽃은 아래에서부터 피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피우는데 화색에 따라서 3가지 품종이 존재한다.(분홍, 하양, 연분홍) 이 식물은 잎이 두껍고 윤기가 있어 잎 자체로도 관상가치가 있다. 토양은 너무 척박하지만 않으면 잘 생육한다. 식재형태는 큰 군락을 이루거나 작은 정형에는 한두 포기씩 포인트 식물로 좋고 수변식물로 적용이 가능하다. 절화용으로도 가능하다.



속근사루비아 마르쿠스

Salvia nemorsa 'Marcus'
꿀풀과, 🌞
4월 말경 촛불형태의 보라색꽃을 피우고 꽃이 지는 6월 초경 커팅을 해주면 다시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다. 키는 20~30cm로 다른 속근사루비아 품종에 비해 작다. 잎에 향기가 있어 허브식물로 사용되기도 하고 곤충들이 많이 찾아든다. 4.5월 다른 꽃이 별로 없을 때 이 시기에 꽃을 보기를 원한다면 대면적으로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앞쪽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물빠짐이 좋은 사질양토나 일반 습윤지를 좋아하고 물빠짐이 나쁜 마사지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다.

4월 말경 촛불형태의 보라색꽃을 피우고 꽃이 지는 6월 초경 커팅을 해주면 다시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다. 키는 20~30cm로 다른 속근사루비아 품종에 비해 작다. 잎에 향기가 있어 허브식물로 사용되기도 하고 곤충들이 많이 찾아든다. 4.5월 다른 꽃이 별로 없을 때 이 시기에 꽃을 보기를 원한다면 대면적으로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앞쪽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물빠짐이 좋은 사질양토나 일반 습윤지를 좋아하고 물빠짐이 나쁜 마사지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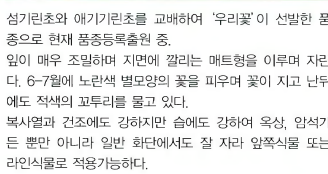
털수염풀

Stipa tenuissima
화본과, 🌞
잎과 줄기는 가늘고 약 50~60cm정도 자라고 꽃밥의 끝에 털이 있다. 잎과 이삭은 밝은 연초록을 띠다가 여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한다. 식물전체의 느낌이 매우 부드러운 식물로 단독으로 나열을 하거나 언덕의 큰 군락으로 식재해도 좋다. 건조에도 잘 견디며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아 디스플레이용으로도 유용하다.



금강애기기린초

Sedum middendorffianum 'Gumkang'
돌나물과, 🌞 🍃
섬기린초와 애기기린초를 교배하여 '우리꽃'이 선별한 품종으로 현재 품종등록출원 중. 잎이 매우 조밀하며 지면에 깔리는 매트형을 이루며 자란다. 6~7월에 노란색 별모양의 꽃을 피우며 꽃이 지고 난뒤에도 적색의 꼬투리를 물고 있다. 복사엽과 건조에도 강하지만 습에도 강하여 옥상, 암석가든 뿐만 아니라 일반 화단에서도 잘 자라 앞쪽식물 또는 라인식물로 적용가능하다.



눈하늘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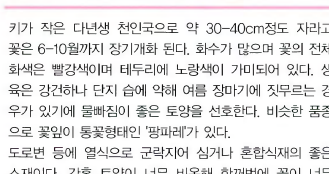
Cerastigma plumbaginoides
갯질경이과, 🌞
잎의 향기가 매우 좋은 식물로 초장은 70~80cm정도 자라고 블루톤의 짙은 화색의 꽃이 입자형으로 길게 피어난다. 7월에서 9월에 걸쳐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는 항상 벌과 나비들이 주위를 맴돈다. 키가 크기 때문에 너무 양분이 많아 웃자하면 쓰러질 염려가 있기에 시비를 적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배초향 품종 중에서 꽃이 좋아 대면적 식재에도 좋으며 라인식재에도 잘 어울린다. 향이 좋아 허브가든에도 알맞은 소재이다. 삽목으로 번식하는데 봄, 가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명숙줄기로 빠르고 넓게 포기를 형성하여 7월부터 10월에 걸쳐 작은 파란색꽃이 모여 핀다. 잎이 매우 조밀하며 지피력이 뛰어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든다. 도로의 양지, 중앙분리대 혹은 넓은 면적의 토양피복을 요하는 장소, 암석가든이나 골프장의 법면에 봄이 꽃잔디를 연상하며 여름, 가을을 수놓을 꽃으로 적용하면 좋다. 봄, 가을로 삽목하거나 분주하여 증식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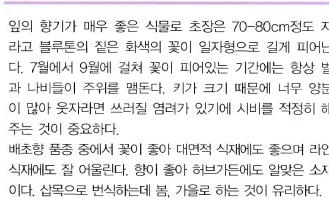
숙근왜성천국국

Gaillardia aristata 'Bicolor goblin'
국화과, 🌞
키가 작은 다년생 천국국으로 약 30~40cm정도 자라고 꽃은 6~10월까지 장기간화 된다. 화수가 많으며 꽃의 전체 화색은 빨강색이며 태두리에 노랑색이 가미되어 있다. 생육은 강간하나 단지 습에 약해 여름 장마기에 지무르는 경우가 있기에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한다. 비슷한 품종으로 꽃잎이 통꽃형태인 '핑파레가' 있다. 도로변 등에 열식으로 군락지어 심거나 혼합식재의 좋은 소재이다. 간혹 토양이 너무 비옥해 한꺼번에 꽃이 너무 많이 피었다가 종자를 맺기 위해 일시 정지할 수 있는데 이때 꽃대를 제거해주면 약 2주후면 다시 꽃을 피운다.



배초향 자랑

Agastache 'Blue Fortune'
꿀풀과, 🌞
잎의 향기가 매우 좋은 식물로 초장은 70~80cm정도 자라고 블루톤의 짙은 화색의 꽃이 입자형으로 길게 피어난다. 7월에서 9월에 걸쳐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는 항상 벌과 나비들이 주위를 맴돈다. 키가 크기 때문에 너무 양분이 많아 웃자하면 쓰러질 염려가 있기에 시비를 적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배초향 품종 중에서 꽃이 좋아 대면적 식재에도 좋으며 라인식재에도 잘 어울린다. 향이 좋아 허브가든에도 알맞은 소재이다. 삽목으로 번식하는데 봄, 가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9
특선



후록스 봄바람, 봄맞이
꽃잔디와 후록스의 만남
후록스 봄시리즈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하지만 예상외로 조경용으로 적용할 봄꽃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항상 '새로운 봄꽃이 없을까'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갈증을 해결시켜줄 2009년 신제품이 바로 후록스 봄시리즈이다. 봄바람(Phlox divericata 'Cloude of Perfume')과 봄맞이(Phlox divericata 'Chattahoochee')

는 Phlox속의 품종으로 후록스와 꽃잔디의 중간 형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다. 다시 말해 꽃이 피는 시기와 형태적으로 모두 중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봄바람은 약 15~20cm 정도 자라며 4월말 경부터 은은한 보라색의 꽃이 피기 시작하여 5월까지 꽃을 피우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향기도 매우 좋은 식물이다. 봄맞이는 키는 30~40cm 정도 자

2009
특선



상록갈사초
고정관념을 버려라!!
갈색 길이가 주는 이색적인 고급스러움

식물에서 초록의 이미지는 생기가 있고 살아 있다는 느낌이라면 갈색이 주는 느낌은 한겨울의 감동되어 죽어 있는 잎의 지상부를 연상시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꽃' 전시회에 심겨진 갈사초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고사된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고정관

념을 깨고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갈색이 주는 이색적인 느낌은 또 다른 고급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소재임을 직감할 수 있다. 갈사초는 봄부터 겨울까지 내내 갈색을 띠고 있는 그라스로 몇몇 품종(C.comans / C. buchananii)이 있는데 초창과 잎모양, 잎의



위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현재 우리조경현장에 적용가능한 곳은 옥상조경 혹은 라가든에 포인트 식물로 좋고 목재데크나 구조물과의 연출이 필요한 곳에 적용하면 유리하다. 그리고 대면적에 와 일드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기타 타식물과 조화를 게 배치하면 차별화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화분에 심어 에버 골드 등 색깔이 좋은 다른 그라스류와 대비하여 디스플레이 용으로 배치해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변식은 주로 포기나누기를 하면 되고 생육은 매우 강건하여 관리 상 까다로운 점은 없으나 다소 내한성이 약하므로 겨울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 곳에 적용하거나 토양을 짙으로 덮어주면 좋다. -

라고 5월초부터 부드러운 진분홍색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6월까지 이어진다.

두 품종 모두 군식하거나 화기가 다른 여름, 가을식물과 혼식을 통해 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단독으로서는 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와도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어 활용가치가 넓은 소재이다. 특히 꽃잔디와 개량후록스와 혼식하면 한 장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꽃잔디와 화색을 고려하여 잘 배치하여 봄 동안에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6월중순경 꽃이 모두 떨어질 때에 개량후록스가 개화하기 시작하므로 이러한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5월경 꽃잔디, 숙근사루비아 외에 꽃을 피우는 조경용 소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봄에 아름다운 꽃방식을 이루는 소재로 앞으로 매우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품종 모두 강건하며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하면 잘 자란다. 봄에 좋은 꽃을 보기위해서는 밀가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 2009년 봄,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을 기다린다. -



Garden Design

아름다운 색감을 지닌 가정용 소연못 연출

Planting Plan

'우리꽃'은 2006년 6월, 제1회 한국조경박람회(월드컵 공원)에 참여, 혼합식재와 세미ARI가든, 소연못으로 부스를 조성했는데 위 사진은 그 중에서 소연못을 표현한 사진이다.

여기에 사용된 숙근초들은 모두 땅에서 캐내어 큰 화분에(7지 이상) 기른 것으로 1회 설치로 바로 조경이 끝나는 완성형이 되어지도록 준비되었던 것이다. 행사장이 평지이므로 초탄을 쌓아 구름을 만들고 고무로 된 방수포를(원드 라인) 깔고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먼저 식물의 배치를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물과 잘 어울리는 자재인 펄비(황토색의 모래)와 호박돌로 마감을 하고 곳곳에 식물들을 배치하였다.

먼저 식물의 배치를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옥잠(호스타)종류라 하였다. 가운데 보이는 옥잠 밤마미아(2)를 중심으로 일정 간격으로 연못을 감싸고 있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준다. 같은 옥잠(호스타) 계통이지만 잎이 블루색인 것(옥잠 엘레강스(4)), 무늬가 들어간 것 등 무늬나 질감을 달리하여 통일감과 전체적인 색감을 살려 줬다. 그리고 흰갈풀(5), 부채붓꽃(6), 무늬꽃(7), 대황꽃(8)로 뒤쪽 스크린을 쳐서 앞의 식물들을 돋보이게 했음은 물론 외부와의 경계를 주어 훨씬 아늑하게 연출을 했다. 또 우측의 부채붓꽃(7)과 흰갈풀(5) 때문에 기울어 잠수 있는 중심을 좌측 대형 무늬 갈풀(1)이 잡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세부적인 부

분으로 들어가 본다. 물 주변으로 아스틸베(1, 6)가 붉은 계열의 꽃으로 라인을 형성해 전체적인 밝은 황금색 느낌에 화려함을 가미해주었고 잎의 질감이 좋은 골드벤드(5), 하코네클로이(4), 홍피(2) 등 키가 크지 않은 그라스를 물 주변과 외곽쪽에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무늬피막이(3), 무늬엘렐라(4), 황금리시마키아(2) 등 잎의 색깔이 좋은 식물들이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고 있고 무늬여귀(5)의 붉은색 잎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물속에서 생장이 가능한 무늬글리세리아, 무늬이성초가 물 가장자리 앞은 물속에 심겨졌고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안쪽으로 가정에서 기르기 쉬운 미니수련이 물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뒤쪽의 초롱꽃 캔트벤(8), 9은 초록색의 배경에 보석을 뿌린 듯 반짝인 다. 그 외 무늬종을 중심으로 반지락을 채워 넣어 주변서 전반적으로 물과 식물들이 잘 어울리지는 고급스러운 조경을 완성하였다.

이 현장은 가정에서 소연못을 조성할 때 양생연못이다. 식물의 선정이나 배치 등 전체적인 연출에 참고가 될 것이다. 30여개의 종을 쓰면서도 심인해 보이지 않고 통일감을 준다는 것과 하나하나 품종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잘 살려내 주었고, 적절한 무늬와 질감을 가진 재물의 사용으로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

Plant List

- 대형무늬갈풀 Phalaris arundinacea 'Fessey'
- 옥잠 밤마미아 Hosta hybr. 'Mama mia'
- 황금담비자 Vinca minor 'Illumination'
- 흰꽃 스노우 Achillea millefolium 'Snow'
- 풀바리 Potentilla fruticosa 'Daydawn'
- 옥잠 팜파리 Hosta hybr. 'Shade fanfare'
- 부채붓꽃 Iris laevigata
- 삼색조원 Spiraea japonica 'Gold flame'
- 흰갈풀 Phalaris arundinacea 'Picta'
- 옥잠 엘레강스 Hosta sieboldiana 'Elegans'
- 아스틸베 에트나 Astilbe arendsii 'Etna'
- 무늬엘렐라 Aegopodium podagraria 'Variegatum'
- 옥잠 빅데디 Hosta hybr. 'Big daddy'
- 제라늄 Geranium sanguineum var. striatum
- 골드밴드 Carex morrowii 'Gold band'
- 홍피 Imperata cylindrica 'Red baron'
- 무늬글리세리아 Glycyrrhiza maxima 'Variegata'
- 아스틸베 푸어 Astilbe arendsii 'leuer'
- 비단세명 Delosperma cooperi
- 홍피 Imperata cylindrica 'Red baron'
- 황금리시마키아 Lisimachia nummularia 'Aurea'
- 홍피 Imperata cylindrica 'Red baron'
- 무늬이성초 Houttuynia cordata 'Chameleon'
- 무늬엘렐라 Aegopodium podagraria 'Variegatum'
- 무늬여귀 Persicaria thunbergii 'Langthorn's variety'
- 무늬피막이 Hydrocotyle sibthorpiioides 'Variegata'
- 무늬이성초 Houttuynia cordata 'Chameleon'
- 부채붓꽃 Iris laevigata
- 옥잠 팜파리 Hosta hybr. 'Shade fanfare'
- 아스틸베 Astilbe arendsii 'Darwin's dream'
- 하코네클로이 Hakonechloa macra 'Aureola'
- 대황종 Rhus undulatum
- 무늬꽃 Artemisia princeps 'Variegata'
- 옥잠 엘레강스 Hosta sieboldiana 'Elegans'
- 초롱꽃 캔트벤 Campanula trachelium 'Kent belle'



봄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꽃방석 시리즈



후록스속에는 세계적으로 약 67종이 분포하며 꽃잔디는 그 중의 한종이다. 꽃고비과로 대부분 북아메리카 동부 원산의 다년초로 봄에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조경소재이다. 간혹 국내에서 지면패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패랭이와 같은 식육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지면으로 기면서 패랭이와 유사한 꽃을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봄에 꽃이 피었을 때 꽃방석을 연출시킬 정도로

매우 조밀하게 꽃을 피우는데 몇년 전만에도 분홍색, 하양색의 품종위주로 사용되어오다가 빨강색, 보라색, 진분홍색 등 다양한 품종이 소개되면서 그 활용가치가 폭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품종이 생육도 강건하여 재배가 용이하고 조경에의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품종이 소개되어서 봄을 알리는 대표식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적용



① 단독군식
현재까지 제일 많이 적용되었던 방법으로 특히 대면적에 군식을 하게 되면 봄에 마치 꽃방석을 이루며 장관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대면적에 단독 군식하게 되면 개화기가 꽃이 지고나면 볼 것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② 혼합식재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식

재기법인 혼합식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패랭이류와 더불어 혼합식재시 양쪽식물로 많이 이용되어 지고 있다. 먼저 봄을 알리는 추식구근, 꽃잔디, 패랭이, 양귀비 등이 꽃을 피고 계속해서 여름, 가을꽃이 뒤를 잇는데 그 시작의 출발선에 꽃잔디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

③ 락가든, 돌틈식재
락가든에도 포인트 식물로 빠질수 없는 필수소재로 전체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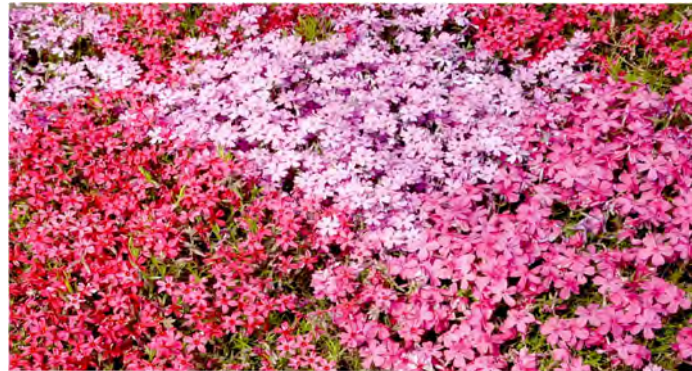
에 골고루 한 두포가닥 오아서 식재를 하면 좋고 2㎡이하의 작은 식육사이의 돌틈식재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④ 품종들의 색깔을 이용한 식재
한 품종을 가지고 군식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다양한 여러 품종을 디자인하여 혼합식재하는 방법이다. 단일색의 단조로움을 뛰어넘어 여러 색이 어울려 보여주는 색의 혼합을 통한 다양한 색의 연출이 가능하다.

품종소개



- ① 꽃잔디(Phlox nivalis)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어 왔던 분홍색 꽃잔디
- ② 꽃잔디 화이트(Phlox nivalis 'Alba')
기존에 사용했던 흰색 꽃잔디는 생육이 약한 단점이 있어 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꽃에서 출시한 흰색 꽃잔디는 전혀 다른 품종으로서 강건하고 특히 습에도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③ 꽃잔디 레드킹(Phlox douglasii 'Red King')
진분홍색의 꽃잔디로 꽃이 크고 화려하며 특히 잎의 절간이 짧고 매우 조밀해 꽃이 지고 난 뒤에도 잎의 관상가치도 뛰어나다.
- ④ 꽃잔디 레드아이(Phlox subulata 'Scarlet Flame')
꽃이 붉은 빨강색 꽃잔디로 가운데 심이 있어 매우 강렬한 느낌을 주는 품종이다. 흰색의 강렬함을 주고 심을 때 알맞은 품종이다.
- ⑤ 꽃잔디 에메랄드(Phlox subulata 'Emerald Cushion Blue')
은은한 연보라색의 꽃잔디로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단일색재도 좋지만 다른 품종과 혼합식재시 그 색깔이 더욱 빛이 난다.
- ⑥ 꽃잔디 레드선(Phlox douglasii 'Red Sun')
2009년 새로 선보이는 신품종 빨강색 꽃잔디로 별모양상의 빨강색 꽃이 모여 구형을 이루는 품종이다. 화색이 아름답고 전체적인 식물의 품이 좋아 기존의 어떤 꽃잔디 품종보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형태, 생태적 특성

꽃의 형태는 작은 별모양으로 꽃잎은 5장이고 꽃의 직경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약 2cm 정도 되고 조밀하게 모여 핀다. 꽃의 색상은 대표적으로 빨강색, 분홍색, 보라색, 흰색 등이 주를 이루고 품종에 따라서 꽃 가운데 심이 선명하게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줄기가 뻗어 나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데 전체적인 품이 구형으로 자라는 품종도 있다. 품종에 따라 잎의 형태도 서로 다른데 잎의 절간이 짧아

매우 조밀한 품종이 있는 반면 힘이 없는 것처럼 늘어지는 형태의 품종이 있다. 꽃잔디는 4~5월에만 꽃이 피고 지기 때문에 이후에 잎의 입모상태도 관상 가치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양지쪽에서 잘 적응하고 토양은 별로 가리지 않으나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건조에도 강하고 공해에도 강해 도심 속 양지 바른쪽이라면 어디에서도 잘 자란다.

번식(재배) 방법

꽃잔디라는 이름만 보고 잔디처럼 씨앗을 뿌려서 번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종종 설계회사에서 꽃잔디를 종자로 씨팅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꽃잔디는 종자가 맺히지 않고 100% 삽목을 통한 영양번식을 통해 증식이 가능하다. 삽목의 방법으로는 트레이에 삽목하는 방법과 포트에 착상하는 2가지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① 포트 착상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로 가을 9~10월경에 마디의 길이가 5~6cm 정도 되도록 자른 모수를 1/3이상이 흙에 닿히도록 포트에 2~3개를 직접 꽂는 방법이다. 뿌리가 없는 상태로 직접 꽂았기 때문에 초기 물을 관리에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워낙 생육이 강건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육묘를 거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 이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② 트레이 삽목

모수가 많지 않을 때 많은 양을 생산하고자 하거나 하우스에 물결이 가득 채워져 포트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 여분으로 비축할 경우 트레이에 삽목을 하기도 한다. 뿌리돌림이 되어진 상태로 포트에 담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용이한 점은 있지만 육묘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꽃잔디 대부분의 품종은 생육이 강건하기 때문에 병해충 등 재배시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충분히 퇴비를 섞어주고 포트에 착상할 경우 뿌리가 내릴 때까지 초기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아름다운 화색의 다양한 품종을 선보입니다.

꽃백합시리즈

다양한 품종으로 백합원 조성가는
숙근초 사이 혼석식재가
고성품은 철물사이 혼석식재면 좋습니다.
(봄에는 식육물, 여름에는 백합물~)
왜성품은 화단, 분경용으로 인성맞춤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02-1686~8

‘꽃양귀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종하세요!!

양귀비는 대면적에 단일종자를 이용하여
확대한 경관연출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현재 지자체, 골프장, 식물원 등에서
봄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의 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꽃에서 다양한
양귀비 품종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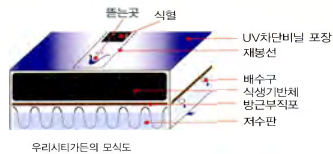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02-1686~8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식물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잔토, 물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경자재를 이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많은 조경용 자재가 선보이고 있다. 이런 가든마켓 자재소개에서는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조경자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우리 원터치 시티가든

보도블록위에도, 계단에도,
교통섬 안전지대에도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한 화분
1회 관수만으로 2개월은 거뜬한
신개념의 화단형 화분 시스템입니다.

신개념 경관, 화단형 화분 시스템, 원터치형 화분!



지금의 많은 축제, 행사 또는 도시미화를 위해 각 지자체나 민간업체들이 기획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꽃이다. 그 꽃을 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경자재가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대형의 꽃화분 등은 설치하기가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며 꽃이 없는 겨울시기에는 웬지 썰렁해보이며 애꿎게 오가는 사람들의 휴지통으로 변해버리곤 한다. 이번엔 소개하고자 하는 '우리시티가든'은 이러한 단점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축제, 행사 디스플레이의 관념을 갠 새로운 조경자재이다.

'우리시티가든'은 직량의 섬유조직과 코코피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제오라이트, 수용성 비료, 향균물질과 미량요소가 잘 결합된 식물생육기판제로 PH5.5~7경도의 식물이 가장 살기 좋은 경량의 화단형 간이 화분이다. 지역축제는 물론 어떤 행사에도 사용가능하며 특히 콘크리트 블록, 도로, 계단 등에 간단히 설치하는 화단형의 화분으로 포장을 뜯고 꽃모를 꽂아 만 주면 행사의 준비는 끝이 난다.

간단히 포장되어 자체로 이용하는 화분으로 방근 무직포가 결합된 특수 저수판과 배수구의 과학적 적용으로 1회관수로 2개월 정도는 재관수는 물론 일체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비관리형 화분시스템이다. 또한 용도가 가진 기본 영양분은 물론 180일 이상 효과가 좋은 완효성 고향비료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 후 6개월 정도는 시비 및 영양제 공급이 필요 없다. 일반 대형화분 1개의 값으로 3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설치, 관리 및 철거가 쉬운 1식3조의 화분 백이다.

그리고 같은 소재로 만들어 가정의 베란다 등에서 토마토, 고추 등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우리채소밭'도 있다.

사용방법

- 1 가법고 운반이 용이한 원터치형의 우리시티가든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로 이동 배치합니다.
- 2 절취선을 벌리고 식물 포트또는 트레이 꽃모를 식별(간단하게 식재가 가능한 구멍)에 꽂아줍니다.
- 3 배수구로 물이 샅 정도로 천천히 충분히 관수를 합니다.
- 4 사용이 끝난 화분은 분리하여 재사용하거나 일반 경사지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피복재로 사용하거나 옥상녹화용 용토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생육이 일호한 우리채소밭

특허 제 10-0807285호

도시미관의 새로운 가능성, 축제 홍보의 장

원시스템 녹화공법 '벽화수'

4천원의 목욕수안에도!
옥상에도!
원터치는 답지에도, 창문에도!

벽화수는 도로변리, 방음벽, 휴게도로의 난간, 교차로, 학교의 담장, 건물외 벽체를 이념과 전통의 화합이나 계절까지 도시의 어떠한 구조물이라도 녹화할 수 있는 원터치 1회 설치로 원조, 비관 경관화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년상으로는 코스트도 가장 저렴하다.

저렴을 위한 비결은

수익과 구입문의 : 0213402-1686 ~ 7

제조 (주)우리꽃 시공 (주)Wellbeing Life

하양의 조팝 흰꽃조팝

여름이 시원한 새로운 관목소개



항상 새로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꽃,
그림에서 품위를 가진..



6월부터 연중 개화하는 라인, 군식,
들메지용으로 좋습니다.

조팝은 우리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른 봄의 전령과도 같다. 특히 하양의 꼬리과 같은 길고 가는 줄기에 탐스럽게 피어 큰 무리를 형성할 때면 절로 감탄이 나는 꽃나무 이다.

그러나 흰꽃조팝은 우리의 텃밭조팝이나 참조팝과 같은 여름에 개화하는 관목으로 보통 키가 다 자랐을 때 60~80cm정도 자라고 꽃은 일반 조팝과 같이 꼬리처럼 피는 게 아니라 줄기 끝에 여러 개의 수많은 꽃이 한꺼번에 우산처럼 피어나 텃밭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일본조팝의 변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혹 하양의 꽃에서 분홍이 섞여 나오기도 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하양의 꽃을 피우는 식물들의 잎은 연한 녹색을 띄는 경우가 많은 데 이 흰꽃조팝의 잎도 맑고 깨끗한 잎을 가져 더욱 여름에 시

원스럽다.

이 식물은 약간 사질의 습윤지를 좋아 하지만 대체로 어디에서도 잘 자란다. 또한 양자는 물론 건물의 잔음에서도 생육이 좋아 앞으로 아파트의 모퉁이는 물론 철쭉 등의 대체관목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들메지용으로 이용해도 아주 좋다. 잎이 조밀하고 꽃이 오래피어 들메지용의 관목이 부족한 우리의 현장에 적용해도 좋을 것이다. 특별한 관리방법은 없으나 기본적인 비배관리와 함께 식물 몸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정과 계속적이고 깨끗한 꽃을 보기 위하여 이미 다지고 난 꼬투리를 잘라주는 게 유리하다. 물론 분홍일본조팝과 황금조팝, 삼색조팝, 까시불은조팝 등과 혼합하여 군식해도 아름답다.

이때 라인을 형성하며 군식하는게 더욱 좋으며 대형

공원들에 보행로 주변이나 한강 등의 산책로 혹은 자전거도로 등에도 이용하면 여름,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맑고 깨끗한 꽃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물론 일지적인 침수를 당해도 빠른 생아력과 잎이 발생하여 여타 다른 관목에 비해 유리한 점도 큰 장점이라 하겠다.



다양한 품종의 화려한 덩굴식물

클레마티스

50종을 선보입니다.

꽃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품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벽면녹화(유인물 설치) 뿐만 아니라 가정원예 용으로 화분에 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독일 에센 원예 박람회(IPM2009) 참관기



2009년 1월29일 독일에서는 대규모 국제전시회인 'IPM2009 원예 박람회'가 Messe Essen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많은 종묘업체와 농자재업체 약 1,400여 업체가 참여하여 자사제품을 선전도 하고 구매 상담도 하였고, 해외에서도 46개국이나 참가하여 약 59,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한 대규모 행사였다.

박람회 첫날, 이른 아침 이었는데도 많은 관람객들이 이미 매표 입구에 운집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다.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화훼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성황을 이룬 것을 보니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각국 유명 업체들이 갖가지 화려한 꽃들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고 특히 칼라를 테마로 한 가든 상품과 쉽 간편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귀여운 이색상품들이 눈에 띄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사람머리형태의 잔디인형과 알 모양의 식물인형, 장미의 신선도를 연상시키는 영양제가 붙어있는 실용적인 제품 등 다양한 상품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상품의 진열 역시 칼라배색에 의한 배치가 매우 세련되어 식물이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기획된 듯 보였다.



칼라마케팅

당신이 상상하는 정원이 현실이 됩니다.

이번 전시회를 둘러보며 우리꽃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품종들을 가지고 '고객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무엇을'에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 컨셉과 칼라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단일품종 판매에서 '이런 모습의 정원을 원한다면 이런 색상 이런 품종의 식물들을 심으면 된다.'고 제안하는 것.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감각으로 상품을 찾고 있으므로 기존의 일반화된 제품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시작을 넓히고 더 적극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국내 화훼시장은 그 시장규모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작은 만큼 꽃을 즐기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완제품 위주에서 이제는 누구라도 따라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DIY제품으로 상품화하여 소포장된 묘종을 사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화단이나 정원, 베란다에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식물을 키우면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꽃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럽의 대형마트처럼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다양하고 쉽게 꽃을 접할 수 있는 가든센터 형식으로 바뀐다면, 그래서 종자, 꽃, 화분, 가든 용품 등을 윈스탑 쇼핑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 화훼시장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화훼산업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힘든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느낀 세계적인 관심과 열정대라하면 2009년 우리의 화훼시장 역시 분명한 대이상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

우리꽃 또한 국내 화훼시장의 확대와 소비자를 그리고 국내 우수품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성공재배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



우리꽃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화훼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람회, 가든센터, 식물인 등을 방문, 소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변화와 최근 트렌드와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품 포장이나 카탈로그를 통해서 미리 정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배려한 제품들



▲ 다른 품종이지만 파스텔톤의 유사색상을 보여주는 식물들을 혼합하면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 같은 품종이지만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심으면 칼라화하면에도 단정한 정원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좋은 소재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시후관리이다. 관리를 게을리한다면 그 좋은 경관은 1년이 지나지 않아 쉽게 일가지게 된다. 그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매화 한가지만을 주제로 하여 초강남당자들의 사후관리의 집합이'가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전 정

식재를 하고 식물이 자라면서 전정은 관리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정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에 따라 전정해주는 시기 또한 다르다. 목적에 따른 전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기개화 유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숙근지피식물들은 꽃이 피는 시기가 한정 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일부 품종은 장기개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개화되는 품종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계속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전정을 해주어야 2차개화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빠르게 2차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개량후복스의 경우 6월중하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대략 8월이 넘어가면서 꽃이 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꽃대 바로 아래 부분을 전정해주면 약 3주뒤에 다시 꽃봉오리가 맺히면서 가을에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아래

쪽을 잘라주면 2차개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꽃대 바로 아래쪽을 전정해주어야 한다. 숙근조스모스, 가우라의 경우는 6월중순경 1차개화가 되기 시작하여 장마전 1회, 그리고 초가을이 시작되는 8월말쯤 다시한번 잘라주면 좋은 꽃을 계속 감상할 수 있다. 이때에도 너무 아래쪽을 바삭 잘라주면 새순이 나와 꽃이 다시 필 때까지 오래 걸리므로 적당한 길이로 전정해주어야 한다. 소화단에 포기수가 많지 않다면 손가위로 잘라주어도 되지만 많은 양을 근식했을 경우에는 전동전정기로 작업해주면 수월하게 일을 끝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정을 해주어야하는 장기개화식물로는 에기노라망게국, 꼬리풀류, 숙근왜성천인국, 토피류, 금계국 왜성사계 등이 있다.

쓰러짐 방지

키가 큰 식물들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쓰러질 염려가 많이 있다. 특히 장마기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쉽게 쓰러져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에는 다 자라기전에 어느 정도 미리 전정을 해주어 적당한 초장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전정해주는 시기가 중요한데 꽃이 피는 시기를 시간적으



개량후복스는 1차개화후 전정해준다면 반드시 꽃대 아래를 잘라주어야 2차개화를 손쉽게 볼 수 있다. 가을에 길어진 지상부를 어느 정도 남겨두고 전정한 액세류

로 얼마두지 않고 잘라주면 제일 중요한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잘라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꽃이 피기 40~50일 전에 알맞게 전정해주면 좋다. 예를 든다면 개량강국의 경우 토양의 상태에 따라 1m이상 자라는데 쉽게 쓰러짐 어지자 많다. 그렇다면 개량강국은 9월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므로 7월중순에서 8월초순사이 지상에서 50~60cm정도 남기고 전정을 해주면 가을에 안정된 모습으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아스타 고성종 또한 꽃이 피기 40~50일 전에 알맞게 전정해주면 좋다.

꽃이 진 후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꽃은 개화기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기위해서 개화기가 서로 다른 식물들을 가지고 다자인해서 혼합식재를 하게 된다. 재각각 꽃이 지고나면 대부분 지저분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때에는 빨리 전정해주는 것이 다른 식물들이 꽃 피었을 때 경관을 해치지 않고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다. 에키나, 펜스테몬 상록용엽, 수레등자, 꽃번외코리, 상록잔디팬텀이 등 꽃대만 제거해도 되는 것이 있고 매발톱 등 잎 아래까지 바삭 잘라주어 새순을 받는 것이 좋은 식물들이 있다.

겨울

겨울이 되면 대부분 지상부가 갈면되어져 피관상보기가 안좋아진다. 그래서 지상부를 잘라주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너무 바삭 잘라주면 식물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겨울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상부의 잔여물이 있어 보온을 해주어야 하는데 바삭 쓰러진 겨울 수위를 바로 맞게되어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꽃꽂, 그라스류 등 지상부로부터 최소 10cm정도 남겨두고 전정하는게 좋다. 물론 액세류 등 겨울에도 품을 그대로 유지하여 관상가치가 있는 것은 이른 봄 전정해주어도 된다. 그리고 에비골드, 골든앤드, 상록감사초 등 상록성을 띄는 식물들은 중부권 이상에서는 겨울에 들어서면서 잎 끝부분이 갈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겨울이나 이른 봄에 순을 컷팅해주어 새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나와다! 축제용 4계절 혼합종!

전천후 축제용 페스티벌혼합종시리즈

계절용 페스티벌 '스프링', '썸머', '스카이' 4가지 색상을 이용한 페스티벌 '화이트', '핑크', '레드', '블루' 키가 작은 페스티벌 '왜성'

우리법면 3, 4호 시리즈로 한국의 대표적인 혼합종을 개발, 최고의 히트작을 탄생시킨 명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편하고 화려한 축제용 혼합종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또 하나, 조경 연출이 필요한 도시의 거리, 길가, 공원 등에 간편하게 처리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육과 관리가 쉽고 개화기가 길어 1회 살포만으로 경관 연출을 완성합니다.

봄



봄에는 '스프링' 페스티벌 파종후 최소 45일 소요
가을에, 봄에 뿌려도 축제날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여름



여름에는 '썸머' 페스티벌 파종후 최소 50일 소요
시원하고 깨끗한 화색으로 여름꽃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가을



가을에는 '스카이' 페스티벌 파종후 최소 60일 소요
바람과 하늘과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 **우리꽃 구입문의 : 02)3402-1686~8**



남극과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꽃과 사람들은 각계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경, 원예, 생태 등에 관련된 주제별 자유로운 기고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이다.
이번호에서는 이은주 교수님의 남극여행기를 소개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이은주 (eilee@snu.ac.kr)
남극 건조지생 전경 (왼편) 녹색은 이끼류, 오른쪽 녹색이 남극곰새물



석죽과 남극개미자리 (촬영: 이은주)

야생생물학자의 꿈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연구해
보는 것이다. 남극과 북극이 그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2009년
1월 6일 아침 8시 칠레의 남단에
위치한 Punta Arenas에서 출발
하는 공군 수송기 C-130에 몸을
실었다. 2시간 30분간의 비행
끝에 차디찬 남극바다를 가로질

러 댄탕으로 된 남극 프리에 공군기지 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서울에서 1월
2일에 출발해서 무려 5일 만에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남극 땅에 도착한 것이다.
밖을 내다보니 멀리 빙하가 덮여 있는 산들이 보이고 해변에는 작은 유빙들이
떠다녔다. 모자를 쓰고 비행기 밖으로 나와 남극에서의 첫 공기를 마셨다. 남극
이라 하지만 아남극에 해당하는 남위 62도 근처이며 또한 남반구의 여름철이라
그런지 생각보단 춥지 않았다.

남극(Antarctica)! 텔레비전을 통해서 귀여운 펭귄이 살고 있으며 눈보라(블
리저드)만 사납게 부는 얼음의 땅으로 알고 있던 곳! 실제 모습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광활한 산악지형 탁 트여있는 아름다운 대자연이다. 하지만 추
운 날씨로 인해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땅이기도 하다. 남극은 언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기록상으로는 1819년 러시아 함장인 벨링스하우젠에
의해 발견되어 알려졌다. 하지만 그전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지만 그 대륙이
남극대륙인 것을 알지 못 한 것 같다. 중국 대륙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거대
한 대륙이 불과 190년 전에 알려졌다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하다. 남극의 자연
은 빙봉(바다를 덮은 두꺼운 얼음)을 포함해 1,362만km²이며 육지 면적의
9.2%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62배이자 남미 대륙의 3/4 정도의 큰 땅이다. 얼음
의 평균두께는 2,160미터이며 남극대륙의 99.75%는 얼음이 덮여 있으며 얼음
이 다 녹으면 전 세계 해면이 약 65미터 정도 상승한다.

왜 남극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전 세계 기후변화가 남극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극 상공에 생긴 오존구멍(ozone hole)과 서울시 크기의 라르센 빙하의 붕괴
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것이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조지 섬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여름 기온이 약 2.5℃ 상승했다고 한다 (다른
곳은 대부분 1도 미만).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가 남극 생태계에 미치는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킹조지 섬에 위치한 남극 세종과학
기지 주변 식물생태계 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과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보름간의 남극 현지조사 결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현화식물이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남극에는 지의
류(地衣類 · lichen)와 이끼류만 주로 발견됐다. 지의류는 곰팡이와 조류(藻類)의
공생체로 영양분이 적거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끈질긴 생
물이다. 최근 남극의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젠 현화식물까지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남극에는 단 2종류의 현화식물이 자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며과 식물인 남극곰새물과 석죽과 식물인 남극개미자리이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식물분포를 조사한 결과 비파(萩)에 속하는 식물인 남극
곰새물(*Deschampsia antarctica*)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 국지
적으로 분포하였으나 최근에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런 속도로 남극곰새물이
늘어난다면 수 십 년이 지나면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골짜기가 들어설 지도 모르
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세종기지 주변
지역(약 16km²)의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분포와 일차생산력을 조사했다. 식물조
사는 가로·세로 1m의 방형구를 여러 곳에 설치해 남극곰새물의 개체수를 조
사한 결과 남극곰새물은 m²당 평균 2.9개체, 비파류에서는 m²당 10개 이상 발견
됐다. 또 다른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Colobanthus quitensis*)라는 식물이
발견됐지만 개체수가 매우 적었다. 관찰된 풀의 99%는 남극곰새물이었다. 남
극곰새물의 m²당 생체량은 최고 22.4g이었다. 얼음이 녹은 뒤 드러난 척박한

수분이 있는 토양에는 이끼나 지의류가 융단처럼 덮고 있는데 이끼류가 갈라진
틈에서 남극곰새물이 자라고 있었다. 이끼층의 갈라진 틈에는 수분과 유기물이
풍부하고 추위를 막아주기 때문이었다. 작은 틈을 경계로 온도 차이가 분명하
게 나타났다.

남극 빙하가 물러가고 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지의류가 자라고, 그 뒤를 이어
이끼류가 퍼지고, 다시 남극곰새물이 뒤를 잇는 '천이(遷移)'가 이뤄진다. 정밀
조사 결과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낮 기온이 영상 5~6도까지 올라가며 이런 높
은 기온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수분이 공급돼 식물 확산이 빨라지는 것으로 추
정된다. 앞으로도 해안에서 육지 쪽으로 폭 20m, 길이 80m의 정밀 조사지역
을 지정해 현화식물의 확산 과정을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남극 연구와 저탄소 녹색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의산화탄소 배출 사회, 녹색성장 경제구조라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까지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류는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데 이것은 인류 경제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발생하였다. 지구 온난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자는 뜻으로, 결국
석유, 석탄 화석 에너지 소비 줄이고 에너지 효율 높이고, 생활습관 바꾸고, 새
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함을 말한다. 이것을 일반인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녹색식물을 생활주변에 많이 키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식물은 이산화탄
소를 먹이로 하여 자라기 때문이다. 또한 벽면녹화 등을 통해 건물의 실내 온도
를 낮추어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험에 의하면 벽면녹화를
잘 할 경우 여름철 건물 실내 온도가 2.6도나 감소하였다. 이번 여름 벽면녹화
에 관심을 가져 지구환경도 살리고 시원하게 지내보자.



남극에서 이끼조사 중 (오른쪽 앞에 자라는 것이 남극곰새물)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과 함께 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모집인원	학력	자격요건
조경설계 생물관리 품종연구	경력 2명 2명 1명	대졸이상 고졸이상 대졸이상	내역 작업 가능자, 현장 실무 경험자 우대 원예, 조경관련 전공자 우대 생물학과, 원예학과 전공자(조직배양 가능자, 경력자 우대)

• 역량 있고 도전정신이 강한 인재를 가족으로 모집합니다.
 • 우리꽃의 강점인 식물의 생리, 생태를 배우고 자신의 정초물에 녹여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 문의사항 / 담당자 : 우리꽃 관리부 김기환 연락처 : 02-3402-1688 (FAX. 02- 3402-1685) 접수 : E-mail 접수 (yonseiuniv@naver.com)

社告

우리꽃 본사 사무실 이전 안내

그 동안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꽃 본사는 가락사정역 제일오피스텔로
이전하여 1월부터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우리꽃은 야생화 및 녹화용 종묘 전문회사로서 고객의 마음과 함께하고
끊임없이 도약하는 우리꽃이 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전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99-3
제일오피스텔 617호(138-715)

연 락 처
TEL_02-3402-1686~8
FAX_02-3402-1685

신년 워크샵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꽃 전직원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보령 개화예술공원으로 워크
샵을 다녀왔다. 이번 워크샵은 '우리는 기회다'라는 구호 아래 우리꽃의 열정과 상충의
우수성을 잘살려 모두를 어렵다고 하는 불편함을 기회로 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리
로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서울본사 이전으로 인한 지사별 연계, 생산비
율의 최소화 등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2009년
새해를 시작하여 우리꽃 전직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고객감동을 위한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조직개편 및 인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확대되는 사업규모에 차질없이 대응기 위해 신규사원을 맞이했으
며 전 사업장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 '영업팀' '생산팀' '관리팀'으로 조직 개편하
였다.

대보름행사

우리꽃은 매년 대보름이면 정기적인 행사를 가
져왔다. 준비된 거대한 달집에 불을 올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불꽃을 바라보며 전직원은 하나되
어 큰 합성을 질렀다. 이어서 직원 개개인은 촛
불의식을 하며 올한해 소망을 비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이 하나가 되어 대보름 행사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쳤다.
이번 대보름 행사를 계기로 얻어진 직원간의 단합과 열정은 앞으로 우리꽃의 성장에
밀거름이 될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IPM2009 예산 원에 박람회 참가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독일 에센에서 열린 원예 박람회에는 4일동안 46
개국 1,423개 업체가 참가하여 식물재배 관련 제품 및 품종, 각종 야채와 식물 종자,
조경 관련 용품과 장비 및 기기 등 다채로운 상품들이 전시되어 약 5만여명의 방문객
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우리꽃 따라잡기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식물을 조경 식재지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조경 식물군의 다양한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1 일 · 이년생 식물 Annuals and biennials

일 · 이년생 식물들은 생활사가 짧지만, 그 용도가 다양하고 유지와 재배가 쉬운 편이다. 또한 어떤 조경지에도 맞추어 식재할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생생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나무와 관목 또는 숙근초가 자리 잡을 때까지 화단의 물을 강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화단, 화분, 거는 바구니 등에서 모두 잘 자란다.

일 · 이년생 식물이란?

한 해에 생활사를 모두 마치는 식물을 일년생이라고 하며, 첫 해에 잎을 관상하고, 다음해에 꽃을 피우고 생활사를 마치는 식물은 이년생이라고 한다.

첫 해에 꽃을 피우고, 종자를 맺는 다년생 식물이나 관목들도 일년생과 같이 취급하여, 같은 조정목적으로 쓰인다.

신종품

매년, 신종품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런 신종품은 완전히 새로운 식물일 수도 있고, 기존의 품종을 개량한 것일 수도 있다. 품종 개량은 꽃 색의 선택이나, 개화시기를 늘리고, 서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작은 정원에 알맞은 왜성종이나 행잉바스켓, 장가 화분에 적합한 품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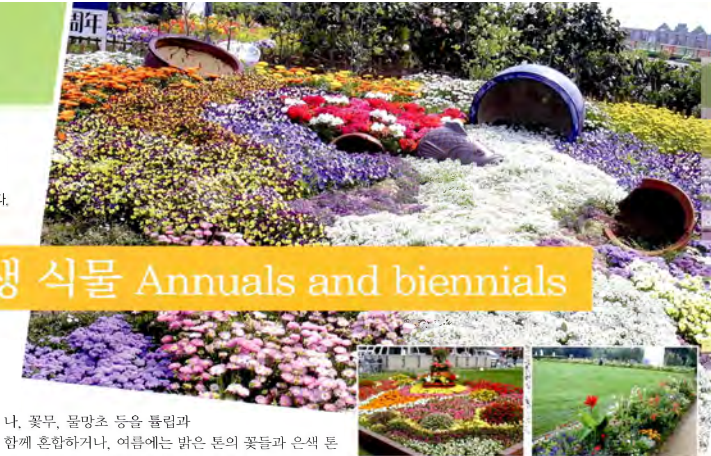
새로운 신종품은 자생지의 한 개체군에서 어떤 식물을 가져오거나, 유전적인 돌연변이로부터 개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적, 지속적 품종개량은 많은 품종의 혈통의 혼동을 가져오고, 몇 개의 품종들이 유사하거나 같은 구조를 나타낸다면, 이러한 품종들은 군을 형성한다. 특히, 같은 특성을 가지나 하나 정도의 특색이 다른(보통 꽃 색) 품종은 시리즈로 묶어 부른다.

조경적용

일 · 이년생 식물은 정원을 새로 만든 경우에, 나무와 관목이 정착하기 전에 빠르게 자라서 여러 색을 관상할 수 있다. 식물들이 자리 잡은 정원의 경우, 큰 틀 안의 공간을 채우고, 색깔을 바꾸는데 쓰인다. 향기로 온 꽃은 벤치나 의자가 있는 구간 등 감상 포인트에서 가까운 곳에 심어 보고 즐긴다. 햇빛이 잘 드는 지역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벽과 울타리 아래에 *celosia*, *coleus*와 같이 민감한 식물들을 심는다.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공간이 제약되는 베란다나 테라스 같은 곳에 특정한 목적으로 쓰인다. 일년생 땅갈 식물들은 나무나 다른 지지대에 기대 자란다.

◆ formal 화단

공공장소 등에서 가장 흔하게 본다. 주의 깊게 디자인된 패턴, 주로 대조되는 모양과 색으로 구성이 된다. 전체 화단을 채워 색깔 있는 카펫을 만들어낸다. 이런 작업은 플러그나 포트에서 길러진 어린 식물들을 재배, 식재하는 계획부터 필요하다. 봄 식재는 편지



나, 꽃무, 물망초 등을 틀림과 함께 혼합하거나, 여름에는 밝은 톤의 꽃들과 온색 톤의 일들이 있는 식물들을 함께 이용한다.

◆ 일년초 화단

일년초들은 화단에 바로 뿌리거나, 모로 심는다. 전체 화단을 일년초로 심는다. 집시꽃, 다기탈리스, 스위트피 또는 양귀비 등 큰 키 일년초를 뒤에다 심고, 키 작은 식물은 전면에 배치하는 두 겹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화단이 많이 쓰인다. 흰색은 거의 경계에 걸쳐 있는 색상으로 많이 쓰인다.

◆ 중년초로서의 일년초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한 계절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우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다. 물망초처럼 꽃이 빨리 피는 종들은, 구근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늦게 꽃 피우는 숙근초들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데에도 좋다. 늦은 시기에 꽃이 피는, 코스모스 같은 종들은 개화기가 빠른 숙근초나 한 번만 꽃이 피거나, 늦은 여름동안에 반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종들을 대체하기에 좋다. 또한 자생지와 관목지인 숙근초 뒤에 키가 큰 일년초를 심으면 그 그들은 자생지와 같은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새로 식재한 관목과 다년생 숙근초 지역에도 일년초들은 몇 해 동안 지면을 채워주며 생동감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낮은 관목 지역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 디기



탈리스가 아주 대표적이다. 낮은 관목을 사이에서 위로 솟아나와 자라 경관적인 포인트를 제공한다.

◆ 자연스런 식재

자연스런 설계 계획에서 실제로는 아주 주의 깊게 계획되었지만, 보기에 자연스럽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식재를 창조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 가지 색상이 우점하여도, 다른 색들과 자연스럽게 산재되어 섞여, 한 색과 다른 색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흰색과 연 오렌지색의 *osteospermum*과 푸른색 *Heliphila*와 *Felicia*, 노랑색 *Nemesia*와 노란색과 흰색의 *Dorotheanthus* 등을 섞어서 밝은 경관을 만들 수 있다. 🌻

피루, 석자, 개화기 가이드

계절	일년생			이년생-첫해			이년생-두 번째 해		
	내한성	반내한성	서리민감	내한성	반내한성	서리민감	내한성	반내한성	서리민감
봄	원래 봄 중순까지 피종한다.	13~21°C 온실에서 피종한다.	13~21°C 온실에서 피종한다.				색이 뜬다. 개화기	색이 뜬다. 개화기	색이 뜬다. 개화기
	가을에 파종한 경우, 봄은 개화기가 된다.								
여름	개화기	유식물을 옮겨심는다. 토양온도가 13°C가 되었을 때 옮겨심는다. 개화기	이른 여름에 유식물을 옮겨심거나 온실에서 기른다. 개화기	피종한다.	13~21°C 온실에서 피종한다. 토양 온도가 13°C가 되었을 때 옮겨심는다. 개화기	13~21°C 온실에서 피종한다. 토양 온도가 13°C가 되었을 때 옮겨심는다. 개화기	개화기	개화기	이른 여름에 옮겨심는다. 개화기
가을	잎이 시들면 제거한다. 다음해 봄 개화용 위해 피종한다. 개화기	개화기. 잎이 시들면 제거한다.	잎이 시들면 제거한다.	가져와 잎 또는 로제트가 발달한다.	가져와 잎 또는 로제트가 발달한다. 서리가 없는 지역으로 옮긴다.	가져와 잎 또는 로제트가 발달한다. 서리가 없는 지역으로 옮긴다.	잎이 시들면 제거한다.	잎이 시들면 제거한다.	잎이 시들면 제거한다.
겨울	가을에 파종한 경우, 겨울나기에 들어간다.			겨울나기	겨울나기	겨울나기			